

精油業界의 현안문제와 대응방안



黃 鎬 升
(대한석유협회 부회장)

I. 企業의 損益상태와 財政상태(流動性) 구별의 필요성

- 일정기간의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의 이익과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상의 재무상태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함.
- 재무구조상의 流動性부족이나 악화로 흑자도산의 실례가 발생할 수 있음.
- 精油社의 1년간의 손익계수도 정부의 油價정책과 국제石油시황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음.
- 精油社의 유동성, 특히 자금수지는 油價정책과 외환정책, 통화신용정책의 Policy Mix임.
 - 외 환 정 책 : 原油 유전시기간 단축
 - 통화신용정책 : 수입담보금의 징구
여신규제의 강화
 - 재 정 정 책 : 관세율 인상

II. 精油産業의 특성

1. 資本·技術集約的 장치産業

- 초기단계 : 자본 기술도입 및 원유의 안정적확보를 위해 메이저와의 제휴 불가피. 단순정제
- 현 재 : 국내 석유류 수요의 輕質化와 시설고도화 필요
 - 크래킹 시설
 - 탈황시설

국내 石油의존도 축소와 경영의 다각화 필요

2. 戰略産業

- 국내에너지 공급의 46.8%(86년 현재) 차지하는 主宗에 너지源
- 국가비상시 필수전략물자

3. 公共産業

- 국민의 衣食住생활과 밀접한 연관
- 석유화학의 기초소재 공급(나프타등)
- 私企業이면서 公기업적인 역할과 기능 요구

4. 低收益性 産業

- 막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반면, 박리다매가 강요되는 저수익성의 산업
 - 국가의 통제로 수익성 저조
 - 국내 타 산업에 비해 자본수익률, 매출액이익률 저조
- 社內유보 빈약으로 재투자재원 확보 불가능

Ⅲ. 精油業界의 當面課題

1. 86년 精油業界 資金不足 실태

(1) 자금부족의 배경

- 국제原油가격의 급변과 국내 대응정책상의 괴리에서 파생됨.
- (2) 자금부족 내역
- 국내油價 조기인하에 따른 原油결제 자금부족: 약 2,500억원
 - 原油대금은 선적일로부터 136일후(유전스 사용)결제
 - 국내油價는 선적일로부터 30일후 인하
 - 결국 국내油價 인하시점과 原油대금 결제시점 사이에 106일분의 시차 발생
- 석유사업기금 및 關稅의 조기징수에 따른 자금부족: 약 5,600억원
- 기 타: 약 300억원
 - 석유제품 수입분에 대한 유전스 사용기간 단축(86. 7. 10부터 90일→60일)
 - 석유제품 수입시 수입보증금 징구 86. 8. 21부터 0%→11%

11. 25부터 11%→16.5%

- 86년 精油業界 총자금부족 발생액: 약 8,400억원
 - (3) 부족자금의 해소
 - 가. 정부의 조치
- 石油事業基金 납부기일 연장(61일): 약 2,000억원
 - 배럴당 1.92달러는 통관시점 납부
 - 배럴당 1.92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관후 61일째 되는날 납부
- 산업은행 외화표시자금 차입: 1,280억원
 - 나. 정유업체의 자구노력
- 유전스 사용기간 최대활용: 약 1,100억원
- 업계 자체차입: 약 1,300억원
- 基金징수 시차차액: 약 2,600억원
 - 이와같은 정부의 지원조치와 업체의 자구노력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.

2. 87年 資金不足과 해소대책

(1) 자금부족의 배경

- 단기 외채규모 축소정책
- 통화 환수정책
- (2) 자금부족 내역
- 총 부족자금규모: 약 9,200억원
- 原油 유전스 사용기간의 단축: 약 4,600억원
 - 87년. 1. 1부터 120일→90일
 - 87년. 4. 1부터 90일→60일
- 原油수입보증금 예치: 약 800억원
 - 87. 4. 1부터 L/C 개설시 原油代의 11% 상당액을 약 100일간 예치
- 關稅인상에 따른 基金징수연기효과 감소: 약 350억원
 - 87. 1. 1부터 관세율이 15→24.5%로 인상되어 基金징수분중 일부를 흡수한데 따른 것임.
- 산업은행 외화표시자금 상황: 1,280억원
- 86년 가정산분(경과시차)基金 추가징수: 2,693억원
- 原油대금 결제전 基金 조기인하에 따른 자금잉여: △541억원
 - (3) 부족자금 해소
 - 가. 정부지원 요청
- 석유사업기금 납부기일 연장 및 대상확대: 약 430억원
 - 통관시 납부금액 축소, 1.92 \$ / B→0.50 \$ / B
 - 基金납부시점 연기확대, 통관후 61일→90일

'87년 精油業界 資金不足 豫想內譯

資金不足 규모

(단위 : 억원)

	금 액	발생시기	비 고
유전스 사용기간 단축 (120일 → 60일)	4,564	4/1-30, 6/1-30	
수입보증금 징구 (0% → 11%)	837	4/1-7/9	
관세인상에 따른 기금징수 연기효과 감소	349	1/1-3/2	
'86년도 정산이익 환수에 따른 기금 추가징수 (\$ 1.83)	2,693	1/1-12/31	
산업은행 외화표시자금 상환	1,280	7/20-7/31	'86이월분
FOB상승 (기금先인하)에 따른 자금잉여	△ 541	5/1-6/28	
計	9,182		

시기별 資金不足 규모

	유전스	수입보증금	관세인상	86 정산익	외표자금	FOB 상승	당월계	누 계
87. 1			178	229			407	407
2			160	207			367	774
3			11	229			240	1,014
4	2,282	251		221			2,754	3,768
5		260		229		△ 284	205	3,973
6	2,282	251		221		△ 257	2,497	6,470
7		75		229	1,280		1,584	8,054
8				229			229	8,283
9				221			221	8,504
10				229			229	8,733
11				221			221	8,954
12				228			228	9,182
計	4,564	837	349	2,693	1,280	△ 541	9,182	

○수입보증금 징수제도 해지: 약 960억원

-原油 도입시 FOB의 11% → 0%

-製品 도입시 FOB의 16.5% → 0%

○산업은행 외화표시자금 상환유예: 약 1,280억원

-상환예정일: 87. 7

○유전스 사용기간 환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: 약 3,400억원

나. 정유업계 자구노력

○외상판매기간 단축 및 대여금 회수등

○업계자구노력의 한계와 제약

-외상판매의 공동단축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

-관공서, 韓電, 水協등 공공기관의 납품대금 회수기간 단축은 수요자 과점 및 예산회계법상의 계약행위이므로 정유사의 일방적 조치 불가

-일반민수 외상기간 단축은 대리점 직매처등에 대한 자금압박내지 부족사태 초래

-流動性 흡수 금융정책하에서 대여금의 강력한 회수는 또 다른 부작용 유발 가능

IV. 精油産業의 손익상황

1. 精油産業의 損益추이

○80~85년 기간중 총 258억원의 누적이익으로 연평균 43억원에 그침.

○이는 현행 정부관리가격의 原價검토요령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이익률 10%와 비교할 때, 연평균 178억원이 미달되는 결과임.

2. 他業種과의 損益比較

○80~85년 기간중 精油産業 총 누적이익: 258억원

○같은 기간중 타업종 누적이익

-전 기 업: 1조3,313억원

-연 탄 업: 474억원

-가전제품업: 1,645억원

-시 멘 트 업: 1,239억원.

-화 장 품 업: 586억원

○이러한 이익 수준으로는 석유류수요의 輕質화에 따른 시설고도화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.

V. 정제시설의 高度化

1. 정제시설 고도화의 필요성

○국내유류수요의 경질화 및 고급화

-저유황유 공급지역의 확대

-가정용 연료의 가스화, 無鉛휘발유의 공급등

○高價의 저유황원유 도입과 저유황제품 수입확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정제시설 고도화는 필연적 과제임.

-현재 極東石油가 신규정제시설(6만B/D)과 重質油 분해시설(3만4천B/D)건설중

2. 시설고도화 투자소요

○총투자소요: 1조6천5백2억원

3. 기타투자 소요 부문

-에너지 절약 시설

-無鉛휘발유 생산 및 공급시설

-LPG 충전소 현대화

精油産業 損益추이

(단위 : 억원)

	1980	1981	1982	1983	1984	1985	計
精油産業손익	△ 575	△ 246	529	△ 15	145	390	258
자기자본10%이	63	120	170	260	289	425	1,327
차 이	△ 638	△ 366	359	△ 245	△ 144	△ 35	△ 1,069

精油産業과 타업종의 손익비교

(단위 : 억원)

	1980	1981	1982	1983	1984	1985	계
精 油 業	△ 575	△ 246	529	15	145	390	258
전 기 업	1,885	1,947	1,829	2,303	2,773	2,576	13,313
연 탄 업	188	39	33	54	100	60	474
가 전 제 품	△ 142	162	180	566	463	416	1,645
시 멘 트	71	△ 103	167	376	410	318	1,239
철 강	2	5	46	142	96	172	463
화 장 품	60	60	74	126	133	133	586

石油수요구조의 輕質化 추이

(단위 : %)

	1981	1982	1983	1984	1985	1986 (추정)	1981-1986 연증가율
L P G	2.8	4.0	5.2	6.3	7.3	8.4	28.3
輕質溜分	14.8	13.8	14.9	16.1	17.4	18.6	7.5
中間溜分	30.3	31.3	32.4	34.8	36.0	37.1	7.1
重質溜分	52.4	50.9	47.5	42.8	39.3	35.9	(4.8)
計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2.7
전국수요 (천B/D)	499.3	497.2	524.1	531.6	533.0	568.8	2.7

低硫黃油 공급확대 추이

(단위 : 천배럴)

	1981	%	1982	%	1983	%	1984	%	1985	%	1986	%
0.4% 輕油	1,895	4.8	9,156	22.5	15,595	34.9	24,236	48.6	33,584	63.7	42,824	74.2
輕油計	39,137	100.0	40,652	100.0	44,735	100.0	49,906	100.0	52,696	100.0	57,722	100.0
1.6% B-C油	2,312	2.5	12,441	13.9	16,294	18.5	20,709	26.0	22,667	31.3	30,853	43.8
2.5% B-C油	2,281	2.5	10,458	11.7	12,523	14.2	9,934	12.5	11,445	15.5	7,036	10.0
B-C油計	92,549	100.0	89,518	100.0	88,059	100.0	79,750	100.0	72,520	100.0	70,464	100.0

저유황유 공급실적

	공 급 실 적 및 계 획
1981	서울지역에 저유황연료유 공급시작
1982	도시권 지역과 釜山지역으로 공급확대
1983	도시권 지역과 慶南·北 및 蔚山지역으로 공급확대
1984	- 기존 공급지역 외 全南·北 및 忠南·北지역에 추가공급 - 공급율이 輕油는 49%, B-C油는 40%에 달함.
1985	- 기존 공급지역 외에 수원, 대전, 광주 등 도시지역과 江原 및 제주지역에 추가 공급. - 輕油는 전체 경유차량에 저유황유로 공급하고, B-C油는 47%까지 공급확대
1986	도시권 지역과 釜山·大邱지역의 유류사용자에게 저유황유 공급
1988	- 서울지역에 공급하는 B-C油의 유황함량은 1.6% 이하에서 1.0% 이하로 낮춤. - 올림픽기간 중 서울지역에 공급하는 輕油의 유황함량은 0.4% 이하에서 0.2% 이하로 낮추어 공급

정제시설 고도화 관련투자 소요 (1984 - 1993)

(단위 : 억원)

	시 설 내 역	건설기간	투자소요
極東石油	• 중질원유 정제시설 60천B/D • 분해시설 3만4천B/D	1984 - 1988. 2	4, 842
油 公	• 분해시설 3만B/D • 탈황시설 3만B/D	1987 - 1989	3, 600
湖南精油	상 동	1991 - 1993	3, 600
京仁에너지	• 분해시설 1만B/D • 탈황시설 2만B/D	1987 - 1989	2, 230
雙龍精油	상 동	1989 - 1991	2, 230
計			16, 502

註 : 極東精油는 정제시설 투자비 포함.

- 송유관 건설
- 해외유전 개발등

○ 현재 국내油價에 반영된 정제비: 1,773원 / B
86년 정제비(추정): 2,148원 / B(375원 / B 과소계상)

○ 油價변동에 따른 정제비의 적시반영
(2) 적정이윤(자기자본 10%) 수준의 재검토

- 시설고도화 투자기반 조성
- 無鉛휘발유 생산 및 공급설비
- LPG 충전소 현대화 사업
- 해외油田개발사업
-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

VI. 결론 및 건의

1. 精油業界 자금부족 해소

- 原油수입시의 수입보증금 징구의무 해지
- 산업은행 외화표시자금의 상환기일 연장(현행 1년간)
- 石油事業基金의 납부기한 연기대상 확대(현행 1.92\$ / B 초과분의 61일 연기→50센트 / B 초과분의 90일 연기)
- 原油수입대전의 단기특별용자 실시
- 석유사업기금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용자 실시
- 關稅 및 특별소비세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

2. 精油産業 수익성 제고

(1) 精製費의 현실화

3. 기타 政策支援

- 重質油 분해시설, 脫黃시설등 시설기자재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시한 연장
- 현행 관세법: 87년말 시한 종료
- 개 정 방 향: 90년대 중반까지 연장
- 原油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의 86년 수준 존속
- 現物原油와 장기계약분 원유도입비율의 신축적 운용

企業人은 좋은 製品,

소비자는 바른 消費